

한평생 수행자의 삶으로 수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고 대중들에게는 중도법문을 통해 따뜻한 가르침으로 불법을 전했던 고우 대종사는 사부대중의 배웅 속에 미련 없이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

시대의 선지식 고우 대종사 빛으로 화하다

문경 봉암사=송지희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명예원로 은암당 고우 대종사가 빛으로 화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한평생 수행자로 살아간 스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써, 장례는 원로회의장이 아닌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치러졌다.

전국선원수좌회 장의위원회는 9월 2일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 대웅전 앞마당에서 고우 스님의 영결식을 거행했다. 영결식은 명종 5타로 시작돼 조계종 전 어장 원명 스님의 영결법요와 내빈 및 수좌 스님들의 헌향과 헌화가 이어졌다.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은 고우 대종사의 행장을 통해 생전 행적을 되짚었다. 스님은 "고우 스님은 늘 불교의 근본이 중도(中道)이고 선은 중도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것이라 하셨다"며 "모든 수행자들의 사표로 한국불교의 참선수행을 바르게 하고 선을 널리 전파하는데 큰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장의위원장 무여 스님(축서사 조실)은 영결사에서 "큰스님께서 보여주신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유지를 받들어 선의 대중화와 선의 세계화가 이뤄져 억조창생(億兆蒼生)이 안심입명하는 그날까지 이 땅의 선자들은 백의단원과 더불어 무한상상의 죽비를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는 법어에서 "금일 고우 대종사의 영전에 공양을 올린다"며 '월락담공수저정(달이 못에 떨어지나 물 밑은 고요함이요)/ 금풍소지산야수(가을바람이 땅을 쓰니 산과 들이 앙상함이로다)' 가르침을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추도사에서 "오늘 우리종단의 큰 스승이자 모든 수행자의 사표와도 같은 어른을 적요의 세계로 떠나보낸다"며 "이제 누구에게 의지해 대종사의 크나큰 원력을 실현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은 "대종사는 우리 선문을 지켜온 기둥이었으며 육조의 현지와 임제의 현의를 드날리고 우리 선문의 기보와 당간지주를 높이 세운 선지식이었다"며 "적멸을 통해 이룬 무일물의 공적이 깊고 깊으며 생사의 틀을 바꾸어 남겨놓은 적막이 천길 벼랑과 같다"고 애도했다.

전국수좌회 공동대표 일오 스님은 "이제 사바의 언덕에서 스님의 따뜻한 미소 다시 볼 수 없고 스님의 정연한 법설을 거듭 들을 수 없게 됐으니 저희 사부대중은 어디에서 가르침을 구해야 할지 혼망하다"며 "고우 대선사의 영전에 조주선차 한 잔 올려 전국선원수좌들의 애도의 마음을 담았다"고 헌다했다.

각계 대표들의 조사도 이어졌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큰스님의 지혜가 메마른 대지에 꽃비되어 내리듯 이땅에 다시 왕림해 달라"며 "오늘 이 추도의 자리가 큰스님과 다시만나는 장이 되게 해달라"고 발원했으며, 이원욱 국회정각회장은 "세상 모든 것이 인연의 화합이라는 큰스님 말씀에 화답하는 삶을 살겠다"며 "화합과 화쟁의 가치를 붙잡고 갈등의 사회를 건널 것이며 갈등의 파도를 잠재우겠다"고 다짐했다.



영결식서 추모사를 하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서
9월 2일 영결·다비식 엄수
전국 제방수좌들 한자리에
연화대로 이운한 법구거화
사부대중 염불로 다비장엄
"속환 사바 하소서" 발원도

영결식에 이어 다비장이 거행됐다. 대종사의 법구는 수백기의 만장을 앞세운 채 영결식이 진행된 대웅전 앞마당을 지나 연화대로 이운됐다. 장의위원 스님과 문도 스님들이 위패와 영정을 안고 함께했으며 스님을 배웅하는 사부대중들은 합창한 채 스님의 법구를 따르며 속환사바를 발원했다. 연화장에 도착한 스님의 법구는 대중들의 애도 속에 연화대에 안치돼 적요의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영진 스님의 거화 발언이 떨어지자, 스님들이 연화대에 불씨를 넣었다. "스님 불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세요"를 외치는 대중들의 모습에서 큰 스님의 빈자리를 향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다비가 이어지는 내내 절을 하거나 쉼 없이 눈물을 훔치며 스님을 추모하는 신도들도 적지 않았다. 스님의 법구는 곧 연기와 환한 빛으로 주변을 장엄하며 타들어갔다. 스님과 불자들은 합장한 채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며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켰다.

한평생 수행자의 삶으로 수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고 대중들에게는 중도법문을 통해 따뜻한 가르침으로 불법을 전했던 고우 대종사는 사부대중의 배웅 속에 미련 없이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

고우 대종사 원적에 정치권도 애도 물결

은암당 고우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하는 각계 추도사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30일 추도문을 발표하고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승이자 큰 어른이신 고우 큰 스님의 입적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생 수행에 정진하셨던 스님은 한국불교의 개혁을 이끈 봉상사 결사정신과 수행가풍을 되살리기 위해 '제2의 결사'를 이끌어 오늘날 봉암사를 수행도량으로 자리잡게 했다"며 "또 적명 스님과 함께 현재의 전국선원수좌회를 창립해 한국불교의 선풍 진작과 세계화에 애쓰셨다"고 업적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무한경쟁을 하지 말고 나와 너의 분별을 버리는 무한향상을 강조하셨다"며 "스님의 가르침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모두 더불어 잘사는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권주자로 나선 정세균 前 국무총리도 SNS를 통해 애도문을 발표하고 "스님은 평생 올곧은 수행정진으로 납자들의 표상이셨고 외형의 공양보다 마음의 등을 밝히는 실천적 불법을 실천해오셨다"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고우 대종사의 갑작스런 비보에 슬픔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前총리는 "스님께서는 임종게 대신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 전해라' 라는 향기롭고 깊은 말씀을 남기셨다"며 "스님이 남기신 말씀에 욕심을 버리는 순정한 삶을 가슴에 되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前 검찰청장은 "평생 수행에 매진해 오신 고우 대종사께서는 조계종 종립선원인 봉암사 태고선원의 기틀을 다졌고 한국불교의 정신적 요람으로 자리잡는데 공헌하셨다"며 "간화선 중흥에 앞장선 것은 물론, 불교를 알리는 일이라면 대중과의 소통도 마다치 않으셨다"고 애도했다. 이어 "다른사람과 무한경쟁하지말고 스스로 무한향상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사회에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희 · 노덕현 기자

"고우 대종사, 수행자의 길 몸소 보여준 선승"

9월 1일 봉암사 태고선원 남훈루서 간담회

장의위원 · 수좌 스님들
생전가르침 · 행적 회고
"봉암사를 일궈낸 주역"
경계 넘은 선지식 상찬



전국선원수좌회는 9월 1일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태고선원 남훈루에서 '고우 대종사 전국선원수좌회장 봉행에 즈음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은암당 고우 대종사의 영결식을 하루 앞두고 조계종을 대표하는 선승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방선원에서 제각기 수행에 매진해 온 수좌 스님들이 고우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하고 그 가르침을 기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 스님들은 생전 가르침과 남달랐던 행적을 되짚는 시간을 통해 "고우 대종사는 모든 수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수행자였다"며 "봉암사 태고선원을 현재 100여명의 수좌 스님들이 수행정진하는 도량으로 일궈낸 주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선원수좌회는 9월 1일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태고선원 남훈루에서 '고우 대종사 전국선원수좌회장 봉행에 즈음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과 전국수좌회 공동대표 영진 스님(백담사 유나),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일오 스님(도성암 선원장), 장의위원회 집행위원장 진범 스님(봉암사 주지)과 선법 스님(수좌회 의장), 장의위원회 총도감 원타 스님(해인총림 유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포항 보경사 선원장 철산 스님과 문도대표 중산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원명선원장 금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참석한 스님들은 저마다 고우 스님에 대한 회고를 통해 수행자로서 남달랐던 행적을 상찬했다. 특히 봉암사를 지금의 수행도량으로 일군 주역이 바로 고우 스님이며, 한평생 수행자로서 살아왔던 그 삶 자체로 모든 수좌들의 존경을 받았던 선지식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장의위원회 총도감 원타 스님은 "1961년 조계종이 새롭게 출발한 당시에는 봉암사가 지금과 같이 비구승 특히 수좌들이 수행하는 도량이 아니었다"며 "고우 스님이 중심이 되어 한국전쟁 이후 단절된 결사를 다시 이어 제2의 결사를 주도했고 이것이 바로 봉암사가 진정한 수행도량으로 거듭나는 기틀이 됐다"고 강조했다.

고우 스님은 전국의 수좌 스님들이 표상으로 삼고 존경하던 선지식이었다. 스님들은 그 이유에 대해 "큰 경계를 넘어섰음에도 정진을 놓지 않았다"며 "중도 사상에 입각해 모든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다"고 입을 모았다.

혜국 스님은 "이미 경계를 넘어선 수행자로 살았기에 세간에서 기대하는 일화는 많지 않다"며 "그나마 기억나는 일화 역시 모두 수행자 그 자체로서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고우 스님은 한평생 도를 추구한 수행자의 표본이기도 했다. 철산 스님은 "마지막 입적을 앞두고 뵀을 때 기력이 완전히 쇠약해지신 모습이었다"며 "열반게를 염두에 두고 가르침을 구했더니 '본래 없더라, 오온이 역시 아무것도 없더라' 하셨다"고 말했다. 또 "금으로 된 봉황이 붉은 하늘을 난다, 개울에 맑은 물은 제대로 흐르더라"는 말도 전했다.

문경 봉암사=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